

지난해 10월 이후 호흡기질환 3244건

여름철(7~9월) 비해 69% 증가한 수치

10세 이하·70대 이상 노인층 '절반' 차지

소방청은 지난해 10월 이후 기침 등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환자가 급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10세 이하와 70대 이상 노인층에서의 호흡기질환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환절기에 기침과 감기 등의 증상을

보이는 호흡기질환으로 질병상담, 응급처치 지도, 병원·약국 안내 건수는 총 3244건이었다. 이는 같은 해 여름철(7~9월)에 비해 69% 증가한 수치다.

또한 기침 등 호흡기질환으로 인해 119구급차를 이용한 응급환자도 4107건으로 여름철(7~9월)에

비해 80%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무엇보다 10세 이하의 어린 아이와 70대 이상 노인층에서의 119 구급이송 비율은 54.7%를 기록했다.

소방청은 "환절기 기온변화, 일교차, 가을황사 등 환경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한 뒤 "생활 속 호흡기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을 자주 씻고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발열과 기침, 목 아픔,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호흡기바이러스가 유행할 때에는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방문을 피할 것을 권장했다.

소방청 박세훈 구급정책협력관(응급의학전문)은 "환절기 호흡기질환의 증가는 급격한 일교차로 몸의 면역력이 약화되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적정 체온 유지에도 신경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뉴스1

성인 70%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해야"

혐오 표현·글 삭제 및 이용 중지 찬성세

성인 10명 중 7명은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성인들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악플에 대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28일 인크루트와 두잇서베이는 316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댓글 작성자의 실명 공개)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악플 근절을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혐오

표현을 발견하면 삭제(80%) △플랫폼 사업자가 혐오 표현이 삽입된 글을 게시한 사람·사이트 이용 중지 및 IP제한 차단(81%) △인터넷 준 실명제 도입(댓글 작성자의 아이디와 IP공개)(76%) 등도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 악플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악플에 대한 불쾌감 지수를 조사한 결과 △매우 불쾌함(47%) △약간 불쾌함(37%) △보통(13%) △약간 낮음(2%) △매우 낮음(1%) 순이었다.

정부, 신종 다중이용업소 사고 원인조사

정부는 최근 성행하는 방탈출카페, 감성주점, 스크린야구장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사고를 대상으로 원인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등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원인조사반(23명)을 구성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다중이용업소'는 영화관, 찜질방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업소를 말하며, 다양한 시설 구조와 영업 형태를 가지고 있어 사고발생 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다.

신종 다중이용업소로는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감성주점과 스크린야구장, 방탈출카페, VR방, 키즈카페, 만화카페 등이 있다. 기존 다중이용업소와 비슷하지만 관련 안전기준과 제도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간이스프링클러와 비상구·내부 피난통로 설치 등의 의무가 없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행안부는 다양한 신종 다중이용업소 중에서도 최근에 사고가 발생했거나 화기 취급 및 음주 허용 등의 영업형태를 가지고 있어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감성주점, 스크린 체육시설, 방탈출카페 등을 중점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뉴스1



대구수목원에서 즐거운 가을나들이 28일 대구 달서구 대곡동 대구수목원 분수광장 일원에서 개막한 '2019 국화전시회'를 찾은 시민들이 '사랑'을 주제로 자연 속 동·식물 화합을 표현한 1만 2000여 점의 다양한 국화 작품을 감상하며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고 있다.

경찰, 전남대병원 채용비리 의혹 고발인 조사 마쳐

전남대병원 채용 부정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최근 고발장을 접수한 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28일 광주 동부경찰서와 전남대병원 노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달 중순 검찰로부터 관련 사건을 인계받아 전남대병원의 채용 부정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고발장을 접수한 노조 관계자들이 최근 동부경찰서에 가서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교육부와 전남대병원

등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노조에서 제기한 고발건과 함께 '품앗이 채용' 의혹과 또 다른 간부 아들의 채용 의혹, 컴퓨터 무단교체 등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자료에 대한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논란이 제기된 병원 관계자 등이 조만간 소환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전남대병원 노조는 지난달 6일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 부정과 관련해 병원측의 감사결과 공개를 촉구하면서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병원측이 감봉(1명)과 경고(11명) 등의 징계를 내린 12명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전남대병원 고위 간부가 아들과 조카 채용에 관여하는 등 '채용비리'가 발생했으나, 병원 측은 숨방망이 처분인 '경고'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남대병원 채용비리와 관련해 '아빠찬스'와 '품앗이 채용 의혹', '전직 간부 아들 채용 의혹', '컴퓨터 무단 교체로 인한 은폐 의혹' 등을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다.



이슈 판결

레깅스 뒤탈 동영상 몰래촬영

항소심서 '무죄' 선고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고 있는 젊은 여성의 허반신 뒷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몰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맞지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촬영은 아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원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버스 단말기 앞에서 하차하려고 서 있는 피해여성 B씨의 뒷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A씨의 휴대전화 추가 영상을 없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70만원과 24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른바 도촬 당할 당시 B씨는 발목까지 덮은 검정색 레깅스와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엉덩이 바로 윗부분까지 내려오는 다소 험렁한 운동복 상의를 입고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외부로 직접 노출되는 B씨의 신체 부위는 목 윗부분, 손, 발목 부분이 전부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반신부터 발끝까지 전체적인 피해자의 우측 후방 모습을 촬영했는데 특별히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시켜 촬영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몰래 촬영했지만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는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 사이에서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고, 피해를 역시 이런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했다"면서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뉴스1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척이요... 자레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인해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 인원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